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리는 호소문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기도와 연대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국민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 폭발적으로 이어 지는 국민적인 저항과 전 세계로 확산하는 국제 연대의 물결을 목도하면서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미얀마교회협의회 (MCC)는 이미 지난 2월 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교회와 국민, 전세계 교회와 시민 사회를 향해 민주주의 회복, 구속자 석방, 폭력중지와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면서, 세계 교회의 기도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도 미얀마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안전을 바라는 공동 목회서신을 회원교회에 보냈습니다.

미얀마는 1988년과 2007년의 상황처럼 더 이상 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짓밟을 수 없는 역사적 시점에 와 있음을 확신하며, 금번의 민주화 운동이 미얀마의 다양한 소수 민족들의 생존권과 자치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려 적극적으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할 것과 미얀마 군부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군부와의 협력을 재고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면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세계교회와 함께 미얀마를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합니다.

1.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의 총선 결과를 존중하고 즉각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2.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와 정부 지도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3. 미얀마 군부는 폭력적인 시위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4.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려 적극적으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미얀마 군부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군부와의 협력을 재고하라.

본회는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계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4일
회장 이경호, 총무 이흥정